

고문 관련 신문기사 정리 I

(73. 11. 26 - 90. 2. 12)

작성 일시 : 97년 7월 16일

작성자 : 한은실

1) 안양천변 추행살인 사건 [2]

1. 이름 : ***
2. 생년월일 : ***
3. 사건명 : 안양천변 추행살인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73년 - 불명확
5. 사건 요약 : 안양천변의 무대로한 추행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구속된 범인의 범행이 검찰수사결과 경찰의 고문으로 자백받은 근거없는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12건의 범행사실 가운데 1건만 증거가 뚜렷할 뿐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6. 출처 : 동아 (73) - 날짜 불명확

2) 고숙중 - 윤경화노파 살인 사건 [4, 7, 9, 29, 31, 35, 42, 44, 46, 51]

1. 이름 : 고숙중

2. 생년월일 : 36년생 쯤.

3. 사건명 : 윤경화노파 살인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1. 8

5. 사건 요약 : 원효로의 윤경화노파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숙중(당시 46세)씨는 물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하였음. 3백일간의 무고한 감방생활. 사형을 구형받았으나 대법원에 의해 무죄 확정. “허리와 가슴등에 멍이 남아 있고 팔이 빠져있는 등 고문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씨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1심 무죄이유). “고씨의 경찰자백은 고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거가 될 수 없고 검찰에서의 자백도 신빙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무죄이유).

6. 수사기관 : 용산경찰서(?)

7. 고문 : 물고문, 잠안재우기, 전신구타

영장없이 11일간 호텔등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옷을 벗기운채 물고문을 당함. 용산경찰서 지하실 등에서 온몸은 짓이기는 고문을 당해 허리를 다침.

8. 후유증 : 허리를 구부리고 다닐 정도. 약을 복용하느라 위장까지 나빠짐.

9. 고소 : 소송 제기, 고문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천5(7)백만원 받음. 국가는 고문을 가한 경찰관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아 국고손실을 가져왔음.

10. 수사관 처벌 여부 : 윤노파의 예금증서를 훔쳤던 하모형사만 징역1년6개월을 복역하고 출감. 하형사와 함께 신문했던 2형사는 재직중. 고숙중씨 사건과 별개인 「하형사사건」의 감독책임을 물어 파면 또는 해임됐던 당시 용산서 서장, 수사과장, 형사계장, 형사반장등 간부들 중 서장을 제외한 3명은 복직됨.

11. 출처 : 동아(82. 6. 21) ** (83. 12. 27) ** (85. 11. 11) 중앙(87. 1. 18) ** (87. 1. 19) 조선(87. 1. 20) 조선(87. 1. 21) ** (87. 1. 22) 중앙(87. 1. 22) 중앙(87. 1. 24)

3) 김근조 - 한일합섬이사 고문치사 사건 [5, 6, 7, 9, 23, 29, 31, 35, 41, 44, 46, 51]

1. 이름 : 김근조

2. 생년월일 : 42년생 쯤

3. 사건명(사건번호) : (경찰 고문 피해자 김근조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1983. 3. 22.

5. 사건 개요 : 83년 3월 22일 한일합섬 이사였던 김근조씨는 재벌기업의 토지부정매입과 관련, 치안본부특수수사대에 의해 연행돼 부산 시내 S여관에서 김만희경위(38)에게 조사받던 중 졸도, 부산대학병원으로 옮겨진 3일 후 절명하였음. 경찰은 고문을 은폐하기 위해 약물중독으로 처리하려 해 적절한 시기에 뇌수술을 받지 못하게 했음. 또한 김근조씨와 같이 연행되었던 이무걸경리과장도 고문을 당했으며, 이들 두사람에 대한 고문행위에는 구속된 김만희경위 외에 최상근경위, 라기선경사도 가세했다고 발표.

당시 이 사건은 가족들과 민한당 등의 문제제기로 인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김만희경사가 구속되었고, 고문여부에 대해 수사·재판되었으나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들을 남겨놓았다.

6. 구금 기간 : 2일 (83. 3. 22 - 3. 23. 새벽 4시 정도)

7. 수사시관에서 직접 고문당한 시간 : 2일

8. 수사기관 : 치안본부특수수사대

9. 고문가해 방법 및 유형 : 자료미비

가슴과 얼굴 등 구타, 기함, 팬티만 입힘, 여관 플라스틱 열쇠막대로 발바닥 구타, 관절 고문 등

* 유가족들은 「가슴, 겨드랑이, 발목, 팔목에 멍이 들어있었으며 무릎의 살갓이 직경 1.5센치 가량 피멍이 든채 부풀어 있었으며, 손마디관절 무릎 발목관절등에 지능적인 고문 흔적이 뚜렷」 하다며 사건이 은폐·축소되었다고 주장했다.

10. 후유증 여부 및 증세 : 사망

11. 재판 관련 사항 : 김근조씨 사건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그를 고문했던 김만희경위가 구속되었고 재판이 이루어 졌으나(김근조씨와 이무걸경리과장을 함께 고문했던 최상근경위와 라기선경사는 구속되지 않았다), 사건은 은폐·축소되었다.

12. 고소, 고발 여부 : 유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자 국가측은 판결금액인 5백8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한 뒤 김경위에게 구상권을 행사, 8백36만원을 청구해 승소했다.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억9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85년 3월 서울민사지법재판부는 「유가족들이 이미 한일합섬측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김이사에 대한 일실퇴직금을 포함한 유족보상금 명목으로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유가족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가족들은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이유없다」 는 이유로 기각당하고 말았다. 유가족들은 세무서측으로부터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는 갖은 위협과 「항소를 포기하라」 는 끈질긴 설득을 받아왔다.)

12. 수사관 처벌 여부 : 고문했던 3명 수사관 중 김만희경사만이 구속되어 재판 받음. 담당경찰관(김만희. 편집자) 7년형 선고. 김만희경위 징역4년이 확정된 후 3년 5개월을 복역하고 가석방 되었음. 이 사건으로 83년 12월 국회에서 고문치사 경찰관에 관해 최고무기징역에 처한다는 특별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그러나 87년 1월까지 이 법이 적용된 경우 없었음)

13. 출처 : 동아(83. 4. 5) *(83. 4. 10) *(83. 12. 27) *(85. 11. 11) *(86. 7. 26) 중앙(87. 1. 19) *(87. 1. 19) 조선(87. 1. 20) *(87. 1. 21) *(87. 1. 22) 중앙(87. 1. 22) 중앙(87. 1. 24) 동아(83. 3. 29) 한겨레(87. 1. 21)

4) 장기한 - 수양어머니 살해 사건 [6]

1. 이름 : 장기한(충북)
2. 생년월일 : 57년생 쯤
3. 사건명 : 수양어머니 원효득 노인살해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1. 7. 12.
5. 사건 요약 : 장기한씨는 81. 7. 12일 이웃에 사는 수양어머니 원효득노인(61)을 찾아가 용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빌어갓던 4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원노인을 목졸라 죽이고 사체를 원노인 집 담 밑에 암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음. 장씨는 경찰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하였음과 검찰에서도 임의성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점이 인정되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음. 이에 대해 검찰에서 상고를 포기함으로 장씨는 1년반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게 됨.
6. 출처 : 동아(82. 11. 18)

5) 장모군, 정모군 - 여대생 박상은양 살해사건 [7]

1. 이름 : 장모군, 정모군
2. 생년월일 :
3. 사건명 : 여대생 박상은양 살해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1-83년 쯤
5. 사건 요약 : 장모군, 정모군은 박상은양 살해사건의 혐의자로 수사 중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 하였으나 무죄로 밝혀졌음.
6. 출처 : **(83. 12. 27)

6) 이세근 - 한강중학교 화재 사건 [8, 13, 14]

1. 이름 : 이세근(용산구 한강중학교 용원)
2. 생년월일 : 46년생 쯤
3. 사건발생 시기 : 84. 10. 17
4. 사건 요약 : 박한주 경위 등 경찰관 7명은 84. 10. 15일 한강중학교 방화사건 용의자로 이모씨를 연행, 모 호텔방에서 84. 10. 17일 9시부터 새벽 3시까지(6시간동안) 자백 강요하면서 가혹행위를 했다. 상의를 발가벗긴채 누어놓고 물고문을 가했고, 전신을 집단구타해 갈비뼈가 부러져 4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무혐의 처리되어 풀려났다. 이씨는 고문 경찰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사실을 밝히고도 관련경찰관들을 기소유예처분하였음.
5. 수사기관 : 용산경찰서
6. 고문 : 물고문, 집단 전신구타 등
7. 후유증 : 갈비뼈 부러짐.
8. 고소, 고발 여부 : 고소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세근씨는 들연 84년 2월 고소 취하였으나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어있다.
9. 수사관 처벌 여부 : 전원 기소유예처분 받음. 한편 천정기 경장등 7명은 85년 6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박반장은 해임되고 나머지 6명은 모두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 또 천정기 경장은 이 처분에 대하여 지나친 처벌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0. 동아(85. 6. 7), ** (85. 6. 8), **(86. 7. 1) **(86. 7. 2)

7) 김시훈 - 전주시 비사벌자립원 앞 살인사건 [9, 23, 29, 31, 35, 44, 59, 95]

1. 이름 : 김시훈
2. 생년월일 : 54년생 쯤
3. 사건명 : 전주시 비사벌자립원 앞 살인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1. 7. 12.
5. 사건 요약 : 81. 7. 12일 김시훈씨는 6월 전주 비사벌자립원 앞 살인사건 혐의로 연행.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동안 전주시 진북 2동 숙직실에서 김씨는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하였다.(조사기간 : 7. 12 - 7. 20) 김씨는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82년 9월 14일 진범이 잡히는 바람에 풀려났다. 석방되었으나 그는 몸은 피폐해졌고 정신도 혼미해져 모든 것을 잃은 후(성기능 장애까지)였다.
6. 수사기관 : 전주시 진북2동 파출소
7. 고문 : 통닭구이, 비눗물고문, 고춧가루물고문, 성고문, 전기고문, 발가벗기기
 - * 7월 중순의 피약별 아래에 몸을 담요로 말아 밖에 내어놓고, 땀을 흘려 물을 찾자 주전자의 물을 머리에 조금씩 부으며 자백 강요.
 - * 눈과 코에도 고춧가루를 집어넣은 후 고무호스로 코에 물을 흘려넣음. 발가벗긴 채 성고문(곤봉으로 성기를 10여차례 내려침)과 구타. 또한 거꾸로 매달린 채 비눗물과 고춧가루고문을 당했고, 전기고문.
8. 후유증 : 몸은 피폐해졌고 정신도 혼미해져 모든 것을 잃음(성기능 장애까지).
9. 재판 관련 : 김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자백이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 김씨는 이어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82년 9월 14일 진범이 잡혀 석방.
10. 고소, 고발 여부 :
11. 수사관 처벌 여부 : 김씨를 고문했던 형사들은 감봉과 견책등의 가벼운 처분만을 받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부장판사는 4년 뒤 변호사로 개업해 성업중이고, 배석판사들도 부장판사로 승진.
12. 출처 : ** (85. 11. 11) ** (86. 7. 26) ** (87. 1. 19) 중앙 (87. 1. 19) 조선 (87. 1. 20) ** (87. 1. 22) ** (87. 1. 28) 한겨레 (88. 12. 28) 문화 (94. 1. 10)

8) 김근태, 이을호, 문용식, 박문식, 허인회 - 민주위 사건 [9, 10, 29, 35, 37, 43, 44, 49, 51, 59, 75, 78, 85, 88, 90, 91, 94, 95, 110, 115, 129, 136]

① 김근태

1. 이름 : 김근태

2. 생년월일 : 47년생 쯤.

3. 사건명 : 민주위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5. 8. 24.

5. 사건 요약 :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씨는 학원안정법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는 혐의(삼민투 배후조종 혐의)로 85. 8. 24일 경찰에 체포돼 즉심에서 구류 10일을 받았으나 구류만기일인 9월 4일 치안본부직원 에 의해 대공수사단에 끌려가 9월 25일까지 모두 10여차례, 40시간 30여분간에 걸쳐 전기고문, 물고문 등 갖가지 가혹행위를 당했다.

변호인단 8명이 고문사실을 확인하고 9월 26일 '고문증거보전신청'을 냈으나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거절.

6. 수사기관에서 직접 고문당한 시간 : 20여일 (10여차례 하루 5-7시간씩 가혹한 전기·물고문 포함)

7. 수사기관 : 치안본부대공수사단 남영동분실

8. 고문 : 전기고문, 물고문, 고춧가루물고문, 소금물고문, 잠안재우기, 발가벗기기, 협박

전기고문시 발가벗기고 눈을 가린 채 발목과 무릎·허벅지·배·가슴을 묶고 머리·가슴·사타구니에 물을 뿌리고 발에 전원을 연결하였다. 비명을 질러 목이 부으면 즉각 약을 투여해 목을 트이게 했다.

9. 후유증 : 고문으로 인한 흉터, 제대로 걷지 못함. - 당시.

10. 재판 관련 사항 : 변호인단 8명이 고문사실을 확인하고 9월 26일 '고문증거보전신청'을 냈으나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거절.

11. 고소, 고발 여부 :

* 민주위사건 가족들은 86. 1. 29일 내무부장관, 치안보부장 및 수사담당 검·경차 관계자들을 불법감금·가혹행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 김씨에 대한 가혹행위는 법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고 김씨가 가혹행위자로 처벌을 요구하며 고발했던 박배근 당시 치안본부장등 13명에 대해서는 87. 1. 6일 검찰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

* 김근태씨 고문사건의 재정신청을 심리했던 재판부가 이미 고문사실을 인정해 기소한 4명의 경찰관 외에 이근안경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추가기소가 이루어질 전망.

* 김씨를 고문한 사실이 재정신청 접수 뒤 22개월만에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백남은(53), 김수현(55), 김영두(53) 최상남(41)씨 등 4명은 곧 재판에 회부. -88년. 12(2). 24 일.

* 김근태씨는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음. 고문행위에 대하여 3천5백만원, 불

법구급 행위 및 고문증거탈취 인멸행위에 대하여 각각 5백만원 등 합계 4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판결.

12. 수사관 처벌 여부 : 이근안 잠적.

고발했던 박배근 당시 치안본부장등 13명에 대해서는 87. 1. 6일 검찰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 .. 김근태를 고문한 경관 4명(백남은, 김수현, 김영두, 최상남)이 불구속으로 재판받음(결심공판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음. 90. 1. 6)

② 이을호 - 민주위(85)

1. 이름 : 이을호(민청련정책실장)

2. 생년월일 : 55년생 쯤.

85. 9. 2일 안기부로 연행돼 무차별 구타를 당한 뒤 하루만에 남영동 대공분실로 옮겨 물고문과 구타를 당하는 동안 정신적 압박이 가중돼 지렁이도 되고 뱀, 닭 2마리, 돼지 3마리가 되는 등의 지속적인 동물환각 속에 있었음. 그해 10월 서울시립 정신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 물고문, 구타 등. 23일 동안 조사를 받는 동안 심한 고문을 당해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이상을 일으켜 서울시립병원에 감정유치되는 상태에 이름. 잠안재우기가 가장 고통스러웠다. 정신착란증세 보임.

③ 문용식 - 민주위(85)

1. 이름 : 문용식

2. 생년월일 : 60년생 쯤.

85. 8. 28일 연행. 남영동 대공분실

발가벗긴채 '철성판'에 묶여 물고문, 위속에 들어있는 것을 전부 토해내고, 그다음엔 방귀를 끼고 대변을 싸다 실신. 철성판에서 몸을 담요로 감싼 다음 발목·무릎·허리·가슴 등을 가죽끈으로 푹푹 묶어놓고, 얼굴에 수건을 덮어 새워기와 큰주전자로 계속 물 부음

④ 박문식 - (81. 전노련 85. 민주위)

1. 이름 : 박문식

2. 생년월일 : 59년생 쯤.

4-5명이 발가벗기고 마구 구타, 철성판에서 고춧가루물고문과 전기고문, 관질뽑기(이근안)

몸을 거꾸로 번쩍 들어 욕조 속에 처박는 '물고문' 3차례,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샤워기로 물을 쏟아붓는 '물고문' 2차례 등.

⑤ 허인회 (85. 전학련삼민투위원장) - 삼민투사건

1. 이름 : 허인회

2. 생년월일 : 63년생 쯤.

85. 9. 6일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10일동안 고문받아 허위자백. 백남은 전무가 고문 지휘, 재즈

음악을 튼 뒤 고문, 재판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 증언했지만 영향 끼치지 못한함.

구타, 물고문, 잠안재우기, 10일동안 전체가 붉은색으로 칠해진 5층 맨끝 방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대단한 심리적 불안감 줌

.. 13. 출처 : ** (85. 11. 11) ** (85. 12. 31) ** (85. 12. 31) ** (86. 1. 30) ** (86. 1. 30) 중앙(87. 1. 19) 조선(87. 1. 20) 한국(87. 1. 21) ** (87. 1. 21) ** (87. 1. 22) 동아(87. 1. 22) 중앙(87. 1. 24) ** (87. 1. 28) 한겨레(88. 5. 15) 한겨레(88. 10. 25) ** (88. 12. 22) 한겨레(88. 12. 22) 중앙(88. 12. 23) 한겨레(88. 10. 25) 한겨레(88. 12. 22) 한겨레(88. 12(2). 24) 한겨레(88. 12. 27) 한겨레(88. 12. 28) 한겨레(88. 12. 27) 한겨레(88. 12. 28) 동아(**) 한겨레(89. 8. 29) 한겨레(90. 1. 6)

9) 김명복, 윤승한 - 도박사건 피해자 고문수사 사건 [11, 12]

1. 이름 : 김명복, 윤승한
2. 생년월일 : 57년생 쯤, 47년생 쯤.
3. 사건명 : 도박사건 피해자 사건조작 고문수사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6. 2. 1.
5. 사건 요약 : 경찰 고중석(40), 이평화(40), 김영태(34) 순경은 상습사기도박군인 이천영(45)씨로부터 3백만원가량을 받고 도박피해자인 김명복씨와 윤승한씨를 안양경찰서로 2월 1일 연행, 2월 2일(2일동안) 까지 고문수사를 통해 강도상해혐의자백을 받아내 구속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송치받은 뒤 수사를 벌여 경찰의 청부수사로 사건이 조작됐음을 밝혀내 김씨를 일단 석방하고 윤씨를 상습도박혐의로 죄명을 바꿔 그대로 구속했다. 사기도박을 벌인 이천영씨 일당 3명은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6. 수사기관 : 안양경찰서
7. 고문 : 통닭구이상태에서 마구 구타(쇠파이프, 경찰봉 사용), 물고문(소리를 지르면 경찰봉으로 입에 수건을 밀어 넣기) 등.
8. 수사관 처벌 여부 : 고중석(40), 이평화(40), 김영태(34) 순경은 치안본부를 통해 전국에 수배했다. (그 후 결과 알 수 없음)
9. 출처 : **(86. 3(9). 10) **(86. 6. 29) **(86. 6. 17)

10) 김문수, 유시주 - 서노련 사건 [11, 13, 37, 59, 75, 92, 95]

① 김문수

1. 이름 : 김문수

2. 생년월일 : 51년생 쯤

3. 사건명 : 서노련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6년 5월 6일

5. 사건 요약 : 서울노동운동연합 지도위원인 김문수씨 등 13명의 노동자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들은 5·3인천시위사태 직후인 5. 3 - 5. 6일 사이에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과 서울잠실 등의 거주지에서 수사관이라고만 밝힌 사람들에 의해 불법 연행되었다. 5. 6일 밤 잠실주공아파트에서 11시쯤 보안사 요원들에게 연행. 보안사 송파분실과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5월 15일 성동경찰서에 수감되기까지 9일동안 영장없이 군·경 비밀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받음.

서노련 지도위원 김문수(34)의 변호인단은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 김씨의 고문흔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냈다(6월 28일). 구속영장없이 10일간 불법구금한 사실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남.

6. 수사기관 : 보안사

7. 고문 : 전신구타, 고춧가루물고문, 전기고문 등

무자비한 구타, 야구방망이로 전신 구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고춧가루물을 코와 입에 들이 붓는 고문, 전기고문(엄지손가락에 전원을 연결한 전기고문2번), 전기방망이로 손과 발을 지저 기질을 하면 마사지를 해 깨어나게 했고, 고문흔적을 없애기 위해 고문이 끝나면 목욕과 마사지를 시키고 안티푸라민 등을 발라 주었다.

8. 후유증 : 앉지도 못하고 소변도 못볼 정도로 전신이 망가짐. 지금도 오른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전신이 결린다.(88. 12. 25)

9. 재판관련 사항 : 고영주, 정진규 검사에게 고문흔적을 보여주며 이를 호소했으나 무시당했고 3차례에 걸친 고문흔적 증거보전 신청도 모두 기각당했다. 함께 연행되었던 14명이 보안사 소속 수사관 20여 명으로부터 갖은 고문을 당했으나 이들이 사복을 입은 데다 사장 전무라 불러 신원확인 불가능.

10. 고소, 고발여부 : 변협은 23일 서울노동운동연합회 소속 김문수씨등 15명을 연행조사한 수사책임자 및 가혹행위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당국에 냈다.(결과 자료미비로 알 수 없음)

② 유시주

서노련사건 관련. 86. 5. 6. 밤 잠실주공아파트에서 동료 13명과 함께 수사기관으로 연행. 유시주씨는 한 평 크기의 지하실로 끌려가 속옷바람으로 시멘트바닥에 꿰어앉은채 밤을 새웠으며 다음날 침대와 욕실등이 갖춰진 넓은 방으로 옮겨져 물고문을 당했다.

1. 고문 : 통닭구이상대 물고문, 구타 등

통닭구이상태 수건을 덮은 불고문. 계속적인 구타와 고문으로 온몸이 시커멓게 멍들자 수사관들이 뜨거운 물과 안티프라민으로 찜질을 해 고문의 흔적을 지웠다.

11. 출처 : ** (86. 6. 9) ** (86. 6. 24) 한국 (86. 6. 24) 동아 (86. 6. 24) 한국 (87. 1. 21) ** (87. 1. 28) 한겨레 (88. 5. 15) 한겨레 (88. 12. 25) 한겨레 (88. 12. 28)

11) 온태희, 배영미 - 5·3인천사태 [12, 13, 14, 15, 37, 59]

1. 이름 : 황언구(26), 박종문(24), 이상명(22), 온태희(39), 이용주(24) 배영미(26)

2. 사건명 : 5·3인천사태

3. 사건발생 시기 : 86. 5. 3

4. 사건 요약 : 신민당 인천사태진상조사위는 인천교도소에 수감중인 37명중 황언구(연대 졸. 위장취업 26), 박종문(인하대4. 24), 이상명(인하대4 22), 온태희(신민당동작지구당원 39), 이용주(인하대3. 24) 등 5명은 경찰의 고문 때문에 허위자백했다는 것을 밝혀내고 형사고발조치하기로 했다(6. 17). 박종문씨의 경우 고문에 못이겨 민정당사 방화범이 이용주 등 2명이라고 허위자백하였음.

구속자 가족 20여명은 17일 신민당사에서 6일째 구속자전원 석방요구하며 농성.

인천사태 구속자가족 12명은 부천경찰서로 몰려가 자신이 자녀들이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 고문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자녀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1시간동안 항의 (6. 26)

구속자들이 경찰로부터 심한 고문을 당하고 억지자백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치안본부 반박 성명.

5. 수사기관 : 치안본부

6. 고문 : 통닭구이, 야구방망이로 발바닥과 정강이 구타, 여자의 경우 하복부 같은 곳을 발로 차 고통과 모욕감을 줌 등.

1시간가량의 폭력을 행사한 뒤 기진맥진하여 허탈감과 환멸상태에 빠지게 한 뒤 자백.

7. 고문 : 몸에 피부가 탄 자국, 고름·수갑자국·멍등 그 흔적·흉터가 남아 있음.(86. 6. 17)

8. 고소, 고발 여부 : 신민당 인천사태조사위는 형사고발조치하기로 했다(6. 17).

① 온태희

부천경찰서에서 당구봉으로 마구 맞아 온몸에 멍이 들었다. 특히 볼기짝은 새까맣게 멍들었다. 볼기짝의 멍이 가신 후에도 형사 5명이 번갈아 주먹과 몽둥이로 때렸다. 팔을 뒤로 제쳐 꺾고 발바닥을 몹시 때려 갖지도 못할 지경.

② 배영미

1. 이름 : 배영미

2. 생년월일 : 61년생 쯤

3. 사건명 : 인천사태 관련.

4. 사건발생 시기 : 86. 7. 5.

5. 사건 요약 : 배씨는 인천사태구속자 가족들을 선동, 경찰서에 찾아가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배영미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 배영미(26 숙대사학2 제적)씨는 6월 25일 인천교도소앞 H식당에서 만난 5·3인천사태 구속자 가족들을 선동, 7.

2일 부천경찰서에서 이들 30여명을 모이도록 했다는 혐의.

9. 출처 : 한국(87. 6. 18) 중앙(87. 6. 17) ** (86. 6. 27) ** (86. 7. 6) 한국(87. 1. 21) ** (87. 1. 28)

12) 이모피고인 등 2명 - 특수절도 [13]

1. 이름 : 이모씨 등 2명
2. 생년월일 : 68년생 쯤.
3. 사건명 :
4. 사건발생 시기 : 84. 10. (?)
5. 사건 요약 : 이모씨등 2명은 84년 10월 방화동 김모씨의 집에 들어가 녹음기, 시계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 연행.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 검찰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그대로 믿고 기소. 이씨 등은 84년 10월에는 다른 사건으로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어 2심서 무죄 인정.
6. 출처 : ** (86. 6. 18)

13) 권인숙 - 부천시 여대생 성고문 사건 [14, 15, 16, 17, 18, 19, 23, 25, 26, 29, 31, 35, 37, 44, 51, 59, 72, 73, 75, 88, 91, 95, 110, 129, 136]

1. 이름 : 권인숙(서울대4. 제적)

2. 생년월일 : 64년생 쯤

3. 사건명 : 부천시 여대생 성고문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6. 6. 4.

5. 사건 요약 : 권인숙씨는 6. 4일 위장취업혐의로 부천경찰서로 연행된 뒤 5·3인천사태관련 수배자를 추궁당하면서 성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

6. 6. 6일 상오 4시쯤 경찰서상황실에서 서장이 수사에 협조를 않는다고 화를 낸 뒤 상황실근무 간부가 문귀동(39)형사에게 수사를 지시, 1층 조사실에서 상오 4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성적 고문을 당했다. 문경장은 “쳐녀나, 인천사태관련 여자들도 옷을 벗기니 모두 자백했다”고 겁을 준 뒤 치부가 노출되도록 옷을 벗기고 진술을 강요했다. 이때 젊은 형사 1명이 옆에 있었다. 6, 7일에는 하오 9시쯤 문경장이 형사 2명과 함께 조사실에서 다리에 각목을 끼운 뒤 넓적다리를 밟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또 9시 30분쯤에는 문경장이 혼자 불꺼진 2호 조사실로 끌고가 밤 11시까지 추행했다. 문경장은 옷을 벗기고 수갑을 뒤로 채운채 치부를 만졌고 문경장 자신도 입에 담을 수 없는 행위로 극도의 수치심을 주며 계속 진술을 강요했다.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앞에 놓인 책상위에 엎드리게 했다. 추행을 하는 중간중간에 서너차례 쉬면서 불붙인 담배를 억지로 입속에 밀어 넣거나 물을 마시게 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경찰의 계획적인 성고문으로 단정, 문경장을 비롯한 경찰관계자를 고발 재야·여성단체들도 진상규명 요구, 권양 6일째 교도소에서 단식.

6. 수사기관에서 직접 고문당한 시간 : 4일(?)

7. 수사기관 : 부천경찰서

8. 고문 : 성고문, 다리에 각목을 끼운 뒤 넓적다리를 밟는 등 가혹행위 등.

9. 재판관련 사항 :

10. 고소, 고발 여부 :

* 7. 4일 교도소에 수감중인 권양은 문경장을 강제추행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 (문경장 이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로 맞고소)

* 7. 5일 변호인단은 문귀동경장과 옥봉환서장등 경찰관 6명을 독직, 폭행 및 가혹행위혐의로 고발.

* 국가를 상대로 5백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냈음.

11. 가족 및 민주세력의 대응 :

* 인천지역구속자 가족 30여명은 7. 2일 부천경찰서 현관에서 관련자 처벌 요구농성

* 권양이 인천교도소에 송치된 뒤 문형사를 강간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교도소측이 고소장을 찢어버렸음.

* 신민당은 7. 5일 진상조사위원 10명 선정.

* 신민당 성고문규탄대회 개최하기로.(7. 8)

* 고대생 40여명 7. 9일 항의 농성

* 천주교·기독교 등 공동대책위 구성하기로.(7. 9)

.. * 86. 8. 14일 성고문 폭로대회가 신민당·재야주최로 열렸다. 경찰의봉쇄가 있었으나 5백여명 참석. 참석하려던 시민·학생 2천여명 몸싸움 산발시위가 있었다.

12. 수사관 처벌 여부 :

* 검찰 조사에 착수했으나 문경장이 권양의 가슴을 몇차례 쥐어박았을 뿐이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문경장이 파면된데다 그간의 공적을 감안해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변호인단이 재정신청을 냈으나 기각.(대법원 계류중 87. 1. 19) - 재정신청 받아들이기로(88. 1. 31)

* 88. 7. 23일 문귀동 전경장 인천지법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88. 12.24)

13. 기타 :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 청량리·서대문경찰서 등에서 여대생들의 옷을 벗기고 토끼뽀를 뿌려 한 사건이 있었음(88. 12. 28일 기사-한겨레)

14. 출처 : ** (86. 7. 3) ** (86. 7. 3) ** (86. 7. 5) ** (86. 7. 6) 한국 (86. 7. 6) ** (86. 7. 6) ** (86. 7. 8) 동아 (86. 7. 7) ** (86. 7. 8) 중앙 (86. 7. 8) ** (86. 7. 10) ** (86. 7. 10) ** (86. 7. 10) 중앙 (86. 7. 9) 한국 (86. 7. 10) ** (86. 7. 13) ** (86. 7. 26) 동아 (86. 8. 14) 동아 (86. 8. 15) 중앙 (87. 1. 19) ** (87. 1. 19) 조선 (87. 1. 20) 한국 (87. 1. 21) ** (87. 1. 22) 중앙 (87. 1. 24) ** (87. 1. 28) 조선 (88. 1. 31) 동아 (88. 2. 2) 한겨레 (88. 5. 15) 한겨레 (88. 12. 24) 한겨레 (88. 12. 28) 동아 (**) 한겨레 (90. 1. 6)

14) 최형우, 김한수, 강근호 - 야당국회의원 13명 고문 [19, 23, 29, 32, 43]

1. 이름 : 이세규, 조연하, 이종남, 강근호, 최형우, 김한수, 김녹영, 김경인, 조윤형, 박종률, 나경석, 김상현, 홍영기

2. 사건명 : 야당국회의원 13명 고문 사건

3. 사건발생 시기 : 72. 10.

4. 사건 요약 : 72년 10월 비상사태선포 직후에 당국에 연행 또는 구속됐던 야당국회의원들은 13명은 고문수사 받았던 사실을 75. 2. 28일 폭로. 이 자리에서 고문정치의 종식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5. 고문 : 물고문, 거꾸로매달기, 알몸구타, 잠안재우기, 통닭구이 등.

① 최형우(36년생 쯤)

용산구에 있는 한 수사기관으로 연행. 물고문, 통닭구이, 통닭구이상태에서 물고문(수건덮은), 잠안재우기, 온몸구타 등

② 김한수(36년생 쯤)

4박5일동안 감금고문수사.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 고문 중 의사가 혈압과 체온을 재고 주사를 놓기도 했음.

③ 강근호(54년생 쯤)

고문 : 만 7일간 불법감금된 채 온몸 발가벗기고 각목 등으로 전신 구타당함, 조명고문, 잠안재우기, 3인 1개조의 수사요원들이 만 5일간 교대로 가하는 고문으로 실신,

후유증 : 쫓기는 환각과 공포에 현재도 시달림(87. 1.), 구타로 인한 좌골신경통과 우측대퇴부 마비가 심해 한달간 입원치료, 3년간 목발 사용. 현재도 다리에 심한 통증과 함께 마비로 고통, 흐린달엔 팔다리가 저리고 머리가 깨지는 듯한 고통에 시달림, 지팡이 없이 보행 불편.

6. 출처 : **(86. 7. 12) **(86. 7. 26) 중앙(87. 1. 19) **(87. 1. 20)

15) 김상복, 고경대, 고경미 - 보임·다산 사건 [20, 21, 37, 78, 95]

1. 이름 : 이범(30), 고경대(27), 고경미(26), 고성국(29), 김미영(25), 광탁성(25), 박성인(28), 전수호(26), 채선미(28), 김상복(30), 김진순(29), 김희준(28), 김해중(22), 강우근(24)

2. 사건명 : 보임·다산 사건

3. 사건발생 시기 : 86. 3. 25.

5. 사건 요약 : 다산기획사(대표 고성국 29. 고대강사), 백산서당(대표 이범 30. 연대정외과졸), 보임기획사(대표 고경대 27. 연대사회학과 졸) 관계자 14명을 운동권배후세력으로 지목.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 고문수사하였음. 불온서적, 슬라이드를 압수. 불온서적물을 번역, 대량으로 대학가에 보급하고 의식화시켜왔다는 혐의.

6. 수사기관 : 치안본부

7. 고문 : 물고문, 전기고문, 전신구타, 협박 등.

① 김상복(57년생)

86. 3. 26일 남영동에서 20여일 동안 고문수사. 한쪽다리가 없는 불구의 몸을 몸을 거꾸로 번쩍들어 옥조 속에 처박는 물고문 3번,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샤워기로 물을 쏟아붓는 물고문 2차례. 그의 목발로 등·가슴 등 온몸을 구타.

수사관 : 고문은 이(김)봉우 상무(경감), 최아무개 경사 등 담당수사관들이 직접했으며, 백남은 전무가 총괄 지휘.

② 고경대(58년생), 고경미(59년생) 남매

남영동에서 30일동안 고문과 취조. 구타, 물고문, 여동생 경미를 함께 취조하면서 가한 협박은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주었고 심적인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음(88. 10. 25)

8. 출처 : 중앙(86. 4. 14), 한국(86. 4. 23) 조선(86. 4. 15) 한국(87. 1. 21) 한겨레(88. 10. 25) 한겨레(88. 12. 28)

16) 박종철 - 고문치사 사건 [30, 32, 33, 35, 37, 38, 39, 42, 44, 45, 46, 51, 57, 75, 110]

1. 이름 : 박종철(서울대 언어학 3)
 2. 생년월일 : 66년생 쯤
 3. 사건명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7. 1.
 5. 사건 요약 : 치안본부에 강제연행돼 고문수사 중 치사.
 6. 수사 기관 : 치안본부
 7. 고문 : 물고문 등.
 8. 고소, 고발 여부 : 89. 11월에 손해배상판결 받음.
 9. 수사관 처벌 여부 :
 10. 출처 : 중앙(87. 1. 19) *(87. 1. 20) 동아(87. 1. 20) 중앙(87. 1. 20) 한국(87. 1. 21) 동아(87. 1. 21) 동아(87. 1. 21) 조선(87. 1. 21) *(87. 1. 22) 동아(87. 1. 22) 중앙(87. 1. 22) 중앙(87. 1. 24) 동아(87. 1. 28) 한겨레(88. 5. 15) *(동아)
- ***** 자료정리에 필요한 기사 없음.

17) 박모군, 이왕준 - 서울대 자민투 사건 [32, 59]

① 박모군

1. 이름 : 박모군
2. 생년월일 : 67년생 쯤
3. 사건명 : 서울대 자민투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6. 5. 25.
5. 사건 요약 : 박모군(서울대경제 83학번)은 86. 5. 25일 서울대자민투 지하조직관련혐의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에 연행되었다. 23일간 고문수사를 받았고 6. 16일 검찰에 송치돼 재판에서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위반혐의로 3년을 선고받고 11월 22일 석방되었다.
6. 수사기관 : 치안본부
7. 고문 : 4-5명에게 몽둥이로 집단구타, 오물이 든 욕조에 치박기, 통닭구이 등.
8. 출처 : **(87. 1. 20)

② 이왕준

1. 이름 : 이왕준
2. 생년월일:
3. 사건명 : 서울대 자민투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6. 5. 29.
5. 사건 요약 : 이왕준씨는 서울대 자민투 관련자로 수배를 받던 중 86. 5. 29일 치안본부대공수사단으로 연행돼 구타와 물고문을 당했음. 연행 24일만에야 검찰에 송치, 재판과정에서 고문사실을 밝혔으나 소용없었음. 현재 집행유예기간중(87. 1. 28)
6. 수사 기관 : 치안본부
7. 고문 : 온몸 구타, 손발을 뒤로 꺾어 묶은 뒤 욕실로 데려가 오물이 담긴 욕조에 약 2분씩 3-4차례 거꾸로 치박는 물고문, 냉장고에 집어넣겠다는 협박 등.
8. 재판관련 사항 : 재판과정에서 고문사실을 밝혔으나 소용없었음. 현재 집행유예기간중(87. 1. 28)
9. 출처 : **(87. 1. 28)

18) 장영인, 채모양 - 박영진씨 장례 관련 [32]

① 장영인

1. 이름 : 장영인
2. 생년월일 : 61년생 쯤
3. 사건명 : 박영진씨 장례 관련
4. 사건발생 시기 : 86. 3. 25
5. 사건 요약 : 장영인씨는 83. 5월부터 구로공단내 '롬코리아'에 생산직사원으로 일하다 85. 7월 위장 취업자로 적발돼 해고. 86. 3. 22일 분실자살노동자 박영진씨의 장례식을 준비하러 전태일기념관에 갔다가 저지되자 동료노동자 70여명과 항의농성을 벌이다 3. 25일 경찰에 연행. 박모형사에게 조사를 받는 중 가혹행위를 당했고 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 유치장에서 자신이 당한 가혹행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됨.
6. 수사기관 : 동대문경찰서
7. 고문 : 주먹으로 구타, 구둣발로 무릎관절부분을 채임, 머리채 뒤로잡히고 입을 틀어막힘, 주먹, 볼펜으로 머리를 찍힘 등.

② 채모양 (** 장영인씨와 같은 사건으로 추정)

1. 이름 : 채모양
2. 생년월일 : 64년생 쯤
3. 사건명 :
4. 사건발생 시기 : 86. 3. 25.
5. 사건 요약 : 채모양(전 남성전기근로자)의 경우 담당형사를 포함한 3-4명으로부터 장시간 집단구타를 당함. 채모양이 운신을 못하자 경찰병원으로 신고가 검진을 시킴. 며칠동안 간호원이 유치장에 찾아와 안티프라민 마사지를 해줌.
6. 고문 : 장시간 집단 구타 등.
8. 출처 : **(87. 1. 20)

19) 신윤남 - 서울대 프락치 사건 [37, 43]

1. 이름 : 신윤남
2. 생년월일 : 65년생 쯤
3. 사건명 : 서울대 프락치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4. 11.
5. 사건 요약 :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된 신윤남씨는 고문으로 정신이상을 일으켰다.
6. 후유증 : 정신이상
7. 출처 : 한국(87. 1. 21)

20) 김동철, 김정호 - 건대사태 [37, 59]

① 김동철

1. 이름 : 김동철
2. 생년월일 : 67년생 쯤
3. 사건명 : 건대사태
4. 사건발생 시기 :
5. 사건 요약 : 건대사태로 구속된 김동철씨는 고문으로 정신이상을 일으켰다.
6. 후유증 : 정신이상
7. 출처 : 한국(87. 1. 21)

② 김정호

1. 이름 : 김정호(안동교도소시국관련사건재소자)
2. 생년월일 :
3. 사건명 : 건대사태관련
4. 사건발생 시기 :
5. 사건 요약 : 건국대농성사건 직후 이유없이 지하감방으로 끌려가 뽕뽕 묶인 채로 추위와 대소변을 참으며 사흘밤을 꼬박 지냈다. 사소한 고투리를 잡아 지하실로 끌고가 손목과 발목수갑을 채워 얹어놓는 일이 자주 있었다.
6. 출처 : **(87. 1. 28)

21) 우종원, 신호수, 김성수 - 의문의 변사 사건 [37, 54, 57, 75]

① 우종원 - 서울대 삼민투관련 우종원 변사사건

1. 이름 : 우종원(서울대 사회복지)
2. 생년월일 :
3. 사건명 : 서울대 삼민투관련 변사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5. 10. 11.
5. 사건명 : 85. 10. 11밤 11시 경부선 영동-황간역사이 철도변에서 투신자살한 시체로 발견돼 그 이튿날 화장됐다. 우종원씨는 한쪽팔이 부러지고 코와 귀에서 피를 흘린 상태로 숨져있는 것을 선로반원이 발견. 자필로 적은 쪽지가 발견됐으나 가족들은 쪽지 내용중 일부만 본인필적이고 사건현장에 있던 신발이 우군 발에 맞지 않는 작은 것이어서 역지로 남의 것을 신게 한 흔적이 있다며 타살이라 주장.

② 신호수 - 인천 연안가스 신호수 변사사건

1. 이름 : 신호수
2. 생년월일 : 64년생 쯤
3. 사건명 : 인천연안가스 변사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6. 6. 11
5. 사건 요약 : 인천연안가스근로자였던 신호수씨는 인천사태관련 혐의로 86. 6. 11일 경찰관이라 자칭한 3명에 의해 승용차로 연행된 뒤 8일 뒤인 6. 19일 고향부근인 전남 여천군 대미산중척 동굴에서 먼양말에 팬티만 걸친 변사체로 발견. 신씨는 발견 당시 양쪽 발목이 피로 얼룩지고 무릎과 양쪽 팔목에 상처가 나있는 상태로 숨져 있었다.

③ 김성수 - 부산송도 앞바다 김성수 변사사건

1. 이름 : 김성수(서울대 지리1)
2. 생년월일 :
3. 사건명 :
4. 사건발생 시기 : 86. 6. 21.
5. 사건 요약 : 86. 6. 21일 오후 6시경 부산시 동도 앞바다에서 김성수군이 고기를 잡던 스쿠버다이빙에 의해 17미터 깊이에서 무게 4.5Kg짜리를 포함, 콘크리트 덩어리 3개를 허리에 매단 채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김군이 학과성적 저조로 고민해 왔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가족들은 시체가 발견된 해안이 일반인 접근통제구역인데다 안경과 신발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로 바위틈 사이에 고스란히 누어져있다 발견된 점에 비추어 피살 후 옮겨졌을 것이라 주장.

6. 고소, 고발 여부 : 야당의원들이 신호수, 우종원, 김성수군의 변사사건에 의문 제기 (87. 1.)

7. 출처 : 한국(87. 1. 21) 동아(87. 1. 26) 동아(87. 1. 28) 한겨레(88. 5. 15)

22) 박호영, 박해선, 신백현 - 경주 국일당구장 살인강도 사건

[42, 49]

1. 이름 : 박호영, 박해선, 신백현

2. 생년월일 : 43년생 쯤, 50년생 쯤, 53년생 쯤.

3. 사건명 : 경주 국일당구장 살인강도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3. 2. 3.

5. 사건 요약 : 경목 영양군 입암지서장이었던 박호영(45)씨, 국일당구장 맞은편 '실버들' 술집주인 박해선(38)씨, 우유대리점 운전자 신백현(35)씨는 83. 1. 14일 경주시 황오동 국일당구장 여주인피살강도사건의 용의자들로 지목돼 경주지청에서 3. 18 - 22일까지(5일 동안) 원시적인 고문수사를 당하여 허위자백.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검사의 상고로 계속 묶여있어야 했음. 1년 2개월동안 억울한 옥살이.

이 사건의 진범들은 86. 3월 이미 다른 죄로 복역중인 기결수임이 밝혀져 범인들에게 강도살인죄가 추가됐다.

6. 수사기관 : 대구지검 경주지청

7. 고문 :

<박호영> 잠안재우기(만 4일), 굶기기, 짓밟기, 전신 구타 등

<박해선> 발가벗기기, 눈과 입을 가리고 손가락 사이에 불펜을 끼워 마구 비틀기, 음식찌꺼기와 오줌이 가득찬 플라스틱 통에 거꾸로 처박기, 통담구이 상태에서 고춧가루물·오줌고문, 수갑을 등뒤로 채우고 꿰어 앉힌 후 각목 구타 등

<신백현> 발가벗기기, 전신구타, 4명 경찰관이 무릎에 각목끼우고 위에서 짓밟기, 물고문, 하룻밤에 4번 기절 등.

8. 후유증 :

<박호영> 시력이 악화돼 신문을 읽을 수 없을 정도, 신경통과 근육경련증 등. 당시 8천여만원 쯤 되던 재산도 소송비용과 옥살이 뒷바라지로 모두 날리고 단칸 셋방에서 생활. (87. 1. 21)

<박해선> 생활능력 완전히 상실,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 양쪽 무릎뼈가 튀어나왔으며, 진통제와 심장약에 의지해 살아감.

<신백현> 신경통으로 운전할 수 없어 집에 있음. 부인이 파출부로 생계. 신씨의 장모는 그가 구속됐다는 소식에 몸져 누운 후 끝내 사망.

9. 재판 관련 사항 :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2심, 3심에서 무죄 확정돼 석방. 이 사건의 진범들은 86. 3월 이미 다른 죄로 복역중인 기결수임이 밝혀져 범인들에게 강도살인죄가 추가됐음.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검사의 상고로 계속 묶여있었음. 1년 2개월동안 억울한 옥살이.

10. 고소, 고발 여부 : 소송 있었음.

11. 출처 : 조선(87. 1. 21) 동아(87. 1. 22)

23) 정재용 - 판금도서 전세계고문의 저자 사건? [43]

1. 이름 : 정재용
2. 생년월일 : 43년생 쯤
3. 사건명 : 판금도서 전세계고문의 저자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75. 1. 9
5. 사건 요약 : 판금도서 「전세계고문」의 저자 정재용씨는 75. 1. 9일 수배상태에서 체포되어 연행과정에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고 3월 초까지 장기간 조사를 받는 중 온갖 고문을 당함.
6. 고문 : 무차별 구타, 거미줄고문(전신을 포승으로 묶고 집단구타), 굶기기, 소금고문(소금먹인 후 물안주기), 잠안재우기, 모스크바고문(혹한기에 발가벗겨 물끼얹기), 수차례 폭행 등.
7. 후유증 : 갈비뼈 1개, 등뼈 1개, 팔목뼈 1개, 허벅지뼈 1개, 관자놀이속뼈 1개 등이 부러지는 등 전신 망가짐. 늑막염, 관절염, 신경통, 위장장애, 온몸쑤심, 날씨가 흐릴 경우 몸살, 말더듬(독방생활로 인해).
8. 출처 : **(87. 1. 21)

24) 조기영 - 고문수사 [48]

1. 이름 : 조기영(성균관대 사회학과 졸. 해고근로자)
2. 생년월일 : 62년생 쯤
3. 사건명 :
4. 사건발생 시기 : 사건발생 시기 알 수 없음. 3차공판 시기 - 87. 1. 21.
5. 사건 요약 : 본 자료로는 사건 전모 파악 불가능.
87. 1.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조기영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고무찬양등)사건 3차 공판에서 고문수사 증인으로 소환장이 발부된 경기도경부천경찰서 정진선경사(고문경찰관)가 불참하였음. 3. 14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하는 한편 정경사에 대해 재소환장을 보내기로.
6. 출처 : 동아(87. 1. 22)

25) 이태복 - 전노련 사건 [59, 78, 84, 95]

1. 이름 : 이태복
2. 생년월일 : 51년생 쯤
3. 사건명 : 전노련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1. 6. 10
5. 사건 요약 : 81. 6. 10일 전노련사건으로 남영동으로 연행. 고문을 통해 '수괴'이며 '공산주의자'임을 자인하도록 강요. 6명의 수사관이 교대로 고문. '유전무', '백전무'로 불리는 경감 2명, 이근^한, 김수현 경위, 경사 2명 등. 보름동안의 고문으로 몸무게가 13kg줄었다.
6. 수사 기관 :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7. 고문 : 물고문, 전기고문, 전신구타, 위협 등
욕조에 처박는 물고문, 양쪽 발가락에 코일을 감아 전류를 통하게 하는 전기고문, 침대 각목으로 온몸 난타,
8. 출처 : **(87. 1. 28) 한겨레(88. 10. 25) **(88. 12. 20) 한겨레(88. 12. 28)

26) 명노열 - 수원경찰서 수사중 용의자 뇌사 사건 [69, 74]

1. 이름 : 명노열
2. 생년월일 : 10대
3. 사건명 : 수원경찰서 수사중 피의자 뇌사 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8. 1.
5. 사건 요약 : 수원경찰서에서 10대 용의자를 수사과정에서 몽둥이로 마구 때리는 등 고문을 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했다(1. 13). 명노열군이 혼수상태에 빠지기 3일 전인 지난 9일경부터 이미 손발이 붓고 다리를 저는 등 거동이 불편할 정도였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6. 수사 기관 : 수원경찰서
7. 고문 : 몽둥이 구타 등.
8. 수사관 처벌 여부 : 독직 및 폭행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수원경찰서 형사계 이왕재순경(32), 조광식경장(34), 박환성경장(50)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거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징역 6년에서 1년까지 실형선고.
9. 출처 : 동아(88. 1. 16) 동아(88. 7. 8)

27) 고모군 외 2명 - 경찰관에 의한 용의자 폭행사건 [70]

1. 이름 : 고모군(14세. H중 3)등 미성년 2명
2. 생년월일 : 75년생 쯤.
3. 사건명 : 경찰관에 의한 용의자 폭행사건
4. 사건발생 시기 : 87. 11. 8
5. 사건 요약 : 고모군 등 미성년자 2명은 강도강간혐의로 서대문 파출소에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했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서대문경찰서 변성대경위(40), 김길동경장(37), 박옥태경장(37)등 3명이 가혹행위.
6. 수사기관 : 서대문경찰서
7. 고문 : 구둣발로 걷어차기, 곤봉으로 무릎 등 정강이 복숭아뼈 부분 수십차례 때리기 등.
8. 고소, 고발 여부 : 변호사회는 이들 3명의 관련 경찰관들을 감금폭행혐의로 검찰에 고발
9. 출처 : 동아(88. 1. 22)

28) 김인중 - 경찰관에 의한 용의자 폭행사건 [70]

1. 이름 : 김인중
2. 생년월일 :
3. 사건명 :
4. 사건발생 시기 : 87. 5. 28
5. 사건 요약 : 종로경찰서 성명미상 경찰관 수명은 87. 5. 28일 절도현행범으로 연행한 김인중씨를 경찰서지하실에 데려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구타, 자백을 강요. 구속했으나 김씨는 검찰송치후 무혐의로
6. 12일 석방.
6. 수사 기관 : 종로경찰서
7. 고문 : 구타 등.
8. 출처 : 동아(88. 1. 22)

29) 김해성 - 경찰관에 의한 용의자 폭행사건 [70]

1. 이름 : 김해성(목사)
2. 생년월일
3. 사건명 :
4. 사건발생 시기 : 87. 2. 22.
5. 사건 요약 : 목사 김해성씨는 87. 2. 22일 오후 6시경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 들어가려다 경비중이던 사복경찰관들에게 구둑발로 뒷머리를 차이는 등 집단폭행을 당해 1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실이 인정되나 경찰은 이같은 사실 부인.
6. 출처 : 동아(88. 1. 22)

30) 윤여연 - 민청련 사건?, 경찰관에 의한 용의자 폭행사건 [70]

1. 이름 : 윤여연
2. 생년월일 : 57년생 쯤.
3. 사건명 :
4. 사건발생 시기 : 86. 11. 14
5. 사건 요약 : 민청련 사무국장 윤여연(32. 집시법 위반혐의)씨는 86. 11. 14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되면 서부터 교도관들에게 집단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그 뒤 정신이상증세를 일으켜 87. 2월 집행유예 로 석방돼 한양대부속병원에서 치료.
6. 고문 기관 : 서울구치소
7. 출처 : 동아(88. 1. 22)